

동경에 사는 재일교포 2세 김홍수씨(31세)는 올해 초부터 선·후배에게 전화를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말이 있다. "우리도 한 핏줄인데, 북한동포를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김씨가 북한동포들에게 나서게 된 것은 연초 한국에서 열린 한·일 청년포럼에 재일한국청년연합(이하 현청련)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을 때, 한국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에서 청년불자들이 전개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지켜보고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JT에서 북한의 기아 실상을 담은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생겨났죠.
 처음 김씨는 모금운동을 한창일 단위 사업로 추진하려고 했다. 일본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망을 갖춘 현청련이라면 고액 모금이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종교단체도 아닌 현청련의



힘을 빌리기 보다는 자신의 인력과 벗들의 도움만으로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더 값진 실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때부터 김씨는 선·후배에게 모금에 동참할 것을 권해온 것이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함께 모금에 나선 사람은 어림잡아 1백40여명. 이들은 개발 능력껏 김씨에게 성금을 보내고,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이것을 모아 한국 JT에게 송금하고 있다.

현재 김씨는 선봉시 조산탁아소에 3백80달러, 나진시 유현농장유치원에 2백70달러 등 6백50달러(한화 88만여원)를 매달 지원하고 있다. 김씨가 지금까지 후원한 금액은 총 4천여달러(한화 5백5십여만원)로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큰 규모의 모금액이다.

김홍수씨는 "10월부터는 동경·오사카 거리모금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미사일 사건이 터져 무산돼 안타까웠다"며 "재일교포 2세에게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은 단물된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한 걸음 한 민족을 확인하는 작업인 만큼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외국인 목사가 보낸 웨블사과 편지 2통

"기독교인의 잘못 조계종에 사과"

미국 상공회 목사인 존 키난은 지난 9월 23일 조계종총무원 사회국장 종서스님 앞으로 편지를 보내 존 교수는 "그런(韃靼) 행동들이 정의와 공의를 지향하는 주에수의 이름으로 자행된다는 사실에 몹시 당황스럽다"고 밝히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존 목사는 또 불교-기독교학회에서 피해복구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의 슬픔과 표현이자 잘못을 보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알아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존 목사는 자신을 버먼트주

의 미술비대대학 종교학과 교수이며, 이 학교의 '불교-기독교학회' 감사라고 소개하고 기독교적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불교의 경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캐나다 토론토의 이반 말렌트 목사도 9월 조계종총무원에 편지를 보

일간신문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8. 29일자), 로이터통신(8. 13), 세계방송 동아시아(영국, BBS World Service East Asia, 9.2) 등 국내외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나타난 반응이다.
 조계종총무원회 손상훈 사무국장은 "양식있는 한국의 개신교인들 스스로가 일부 극단적인 한국개신교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의 사과편지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와 올해에만 개신교인들의 소행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사찰방화 불상훼손 등 해발사건은 모두 13건이 발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16일 진각종이 주관한 국난극복 참회법회에서 교계대표를 비롯 각계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위기극복을 기원했다.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호국불교의지 재결집할 때"

진각종 총인원 16일 '국난극복 참회법회' 2천여 대중 동참

오늘의 경색난을 참회로 극복하고 만다라 정신으로 민족 화합을 기원하는 '올마니반베홍' 6차전인비가 진각종 총인원 앞마당에 세워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주최해 전국을 순회하며 열고 있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법회'의 제6차대회로 진각종이 주관해 16일 봉행된 제 6차대회에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탑주심인당에서 장엄하게 치러졌다.
 1부 전인비 제막식에 이어 총인원 법당에서 열린 2부 회법요식에서 성호 진각종총리원장은 대회사로 통해 국가적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한다는 의지로 전인비 건립을 하겠다고, 그 공덕으로 조속히 국난이 극복되고 민족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월주 종단협회장(조계종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불자들의 참회수행과 호국불교의지로 국가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전대통령 김보임 보건복지부장관 신계봉 서울시

부시장, 전은익 현대종총무원장, 홍지화 총지종총무원장의 기원사가 있었다.

전 대법원장은 "남을 원망하거나 폐배의식에 빠지기 쉬운 때 불자들이 참회법회를 통해 국난극복의 신념에 서니 참으로 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근질한 생명력과 의지 자애 근면성으로 이뤄내자"고 기원했다.

김 복지부장관은 "불교계의 각종 구불사업이 오늘의 실적 속속자 등 소외된 이웃의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불자들의 현실극복을 위한 정성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서울시부시장도 "불자들이 국난극복의지와 상징으로 전인비까지 세워 믿을 모으는 호국불심은 1천6백여년 불교의 역사구현"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원했다.
 이어 박상규 국민의회의 연동회회장은 불자들의 발원을 모아 참회를 통한 새출발을 다짐하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이에 앞서 진각종도들은 15일 오후8시부터 11시까지 전국 1백22개 심인당에서 일제히 '올마니반베홍' 3정근을 했다.

한편 부대행사로 16일부터 18일까지 탑주심인당에서 열린 동북구립신불사 참회법회 불자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 모아진 수익금은 모두 복지기금으로 쓰여진다.

위영란·김원우 기자 (yryu@buddhapia.com)

불교문화 체험기행

11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속리산 법주사,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 등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정이종승(현연기념물 제103호),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목조 5층탑인 팔상전(국보 제55호), 쌍사자석등(국보 제5호), 세계최대 규모의 청동미륵대불 등으로 널리 알려진 법주사를 참배합니다. 또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제조한 흥덕사가 있었던 곳으로 인쇄술의 발달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활자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월 "금속활자를 통해 본 선조들의 슬기"
 법주사·흥덕사지(고인쇄박물관)

- 출발: 11월15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 회비: 3만원(점심 제공, 박물관 입장료 포함)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정경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제4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품어두기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투명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 마감 12월15일

- △ 주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 분량: 2백자 원고지 30매 안팎
- △ 접수처: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담당자, (02)722-4162
- △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 △ 시상내용:
 - 유야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특별상:
 - 종단협의회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현대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화장장기증 소극적 23면

불우이웃돕기 전시음악회 7면

조계종 선거 이모저모 9면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범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리는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정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신명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모습들을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일장서는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전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여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축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 지 청 안 합 장

· 입 재 : 1998(불기2542)년 11월 23일(음 10월 5일) 오전 10시 · 회 향 : 1998(불기2542)년 11월 29일(음 10월 11일) 오전 10시

· 동 (1인당) 5,000원 · 영가 위패(1위당) 5,000원 · 대장경을 읽고 법성도를 돌리면서 윤장대를 윤전할시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용문사 · 당일엔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윤전 대장경 초청 법회 : 영어 록원 큰스님, 화산 큰스님, 자광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소백산 용문사 문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법보대찰 소백산 용문사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정연사

조계사일 버스출발 안내 11월 23일~ 1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출발(당일 왕복) ☎ : 720-1656 (전화로 출발일을 접수하여 주십시오)

